

## 10/27(수) 욥기 묵상 12

### 욥기 6:1-2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데만 사람으로 욥의 지혜로운 친구였습니다(렘 49:7,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데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의 변론을 듣고 허탈함에 빠지게 되고 그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지는 않지만 비통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 비통함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비통함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1-2절상,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고난이 그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을 주는지 그것을 저울의 비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경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전제하면서도 욥은 그의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는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욥은 엘리바스의 조언(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과는 달리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4절의 표현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 쏜 독화살에 맞아 쓰러져가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유는 마치 하나님을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서 욥이 이처럼 경솔한 표현을 내뱉고 있는 것은 그가 이해를 바라는 만큼 그가 지금 깊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욥은 또다시 엘리바스의 조언과는 반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변론에서 두 번씩이나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 소망을 가지라고 교훈 했습니다(4:7-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같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5: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하지만 욥은 자신이 죽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8-10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 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심지어 욥은 이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직접 끊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합니다. 욥이 이러한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의견을 조롱하고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5: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 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의 본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차라리 지금 죽으면 자신이 앞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욥의 순전한 믿음과 함께, 둘째로 욥의 한계가 이제는 다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이처럼 죽고 싶어하는 또다른 이유는 그의 기력이 고난으로 인해 쇠할 때로 쇠했기 때문입니다(11-12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늦쇠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갈멜산에서 850:1로 싸워서 승리했지만 바로 악녀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져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으로

도망쳐서 작은 로렘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한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야도 이같은 뜻밖의 반응을 취했던 것은 그의 기력이 쇠한 까닭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와 위로는 천 마디 말보다 한가지라도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와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14-15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는구나.**”). 욥은 친구들의 동정은 커녕 그가 형제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부끄럽다고 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울’과 같은 존재인데 여기서 개울은 ‘와디’라고 하는 시내를 의미합니다. 와디는 우기 중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금새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는 시내를 말합니다. 즉, 변덕스럽고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한 친구들을 욥은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비난은 2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20절은 뜨거운 날에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낭패를 보고 돌아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립니다. 또 21-23절은 친구들을 겁쟁이로 비유함으로써 욥이 고난 당한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욥처럼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욥을 피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친구란 누구인가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참된 친구는 욥의 친구인 엘리야스와 같이 아무리 지혜롭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을 해준다 할지라도 사랑과 동정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지식이나 우리의 경건한 말로 우정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참된 우정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우정을 가진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 방법은 내가 이웃에게 먼저 참된 우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은 참된 우정을 가진 친구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찬구 따라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친구 사이란 때로 내 마음과 형편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친구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이처럼 욥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요 15: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과연 주님의 친구입니까?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PCUSA 교단을 위한 기도:** 이번 주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 교단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교단이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되어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교단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브랜포드 1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콜럼비아개혁신학교(보고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